유 럽

○ 佛 연구기관 직원, 러시아 영사관에 폭발물 투척

- 2.27 지난 24일 프랑스 당국은 마르세유 주재 러시아 영사관에 사제폭발물을 투척한 범인 2명을 체포했으며, 이들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의 엔지니어와 화학자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진술

※ 러시아는 同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프랑스 당국에 보안조치 강화를 요구

○ 獨, 만하임 시내 차량돌진으로 13명 사상자 발생

- 3.4 언론은 독일 남서부 만하임에서 차량이 행인을 향해 돌진하여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으며, 경찰은 루트비히스하펜에 거주하는 40세 독일 국적 남성을 체포하였으나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발표

※ 수사당국은 용의자에게 정신질환 징후가 있다며 정치적 동기로 범행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으며, 언론은 만하임 內 예정된 카니발 행사를 취소했다고 부언

미 주

○ 美 트럼프 대통령, 현장 지휘관의 對테러 드론공격 결정권한 확대

- 3.2 언론은 「도널드 트럼프」 美대통령이 대테러 드론 공격 등 관련 제한을 완화해 현장 지휘관 결정 권한을 확대했으며, 이에 따라 소말리아·예멘 등 지역에서 美드론이 더 많은 공습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인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

○ 美 중부사령부, 시리아에서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 공습

- 3.2 美 중부사령부는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인 '후라스 알-딘(Had)*'의 고위 군사 지도자 「무함메드 유수프 지야 탈레이」를 겨냥한 정밀 공습을 실시해 해당 인원을 제거하였다고 보도

* 시리아 「아사드」 정권 타도 및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, 알카에다의 통제 하에 있으며 시리아 반군 뿐만 아니라 對서방 공격 등 글로벌 테러에도 관심 多

중 동

○ 이스라엘, 인도에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 촉구

- 3.4 언론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자급 인물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테러단체 행사에 참석하자 하마스와 파키스탄 테러단체들 간 연계 가능성을 강조하며 인도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

  ↱ 美, EU, 캐나다, 호주, 영국 테러단체 지정

  ※ 인도에서는 1967년 제정된 '불법활동금지법(UAPA)'에 따라 특정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며 현재 ISIS 등 44개 단체가 테러단체로 등록

아 태

○ 韓, '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' 형법개정안 통과

- 2.27 언론은 온라인 살인예고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개정안 '공중협박죄' 신설 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, 인터넷상에 공중협박을 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보도

  ※ 기존 협박죄 등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등의 입증이 어려워,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 중 일부는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는 등 현행법상 한계가 존재

○ 韓, "광명역 폭파 협박 글 작성자"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

- 2.27 언론은 온라인에 "광명역을 폭파하겠다"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, 同人은 2021년에도 "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"고 전화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보도

  ※ 재판부는 "해당 글로 인한 13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와 검찰 조사 중 교도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"고 판시

○ 韓, 세계 최초 '안티드론 자격증' 제도 도입

- 3.4 언론은 최근 드론 기술이 발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드론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'안티드론 운용자 자격증' 제도가 도입되어 4월 초 첫 자격증(민간자격증)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보도

  ※ 한국대드론산업협회는 지난해 7월 민간자격증 인가를 받아 군·소방·경찰 등 공무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 및 정부와의 협력도 추진 中

아프간 카불市 軍병원 자살테러

○ '17. 3. 8 아프간 수도 카불市 '사르다르 모함마드 다우드 칸' 軍병원에서 괴한들이 자폭 및 총기 난사, 49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

- 테러범들은 의사로 위장하여 병원에 잠입한 후, 1명이 입구에서 폭탄조끼를 터뜨리고 나머지 3명이 병실을 돌아다니며 소총을 난사
- 軍은 헬기를 통해 특공대를 긴급 투입하여 6시간 이상의 총격전 끝에 테러범 전원 사살

○ 사건 직후, ISIS가 아마크통신*·텔레그램을 통해 폭탄조끼와 소총을 들고 ISIS의 깃발 앞에 서 있는 테러범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배후를 자처

* 아마크통신 : ISIS의 온라인 선전 매체

○ 이에, UN 안보리는 "테러를 실행·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한 이들은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할 것"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

- 한편, 전문가들은 ISIS가 시리아·이라크 격퇴전으로 거점지역인 모술·락까 등을 잃자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자행한 것으로 분석

테러 상식

< 아프간 內 활동 테러단체 >

① **알카에다**

■ **(목표)** 全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

■ **(활동수법)** 對서방 자폭테러 및 테러선동

② **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(ISIS-K)**

■ **(목표)**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
*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를 지칭하는 옛 지명

■ **(활동수법)** 도시에서는 軍警·다중운집 장소 대상 테러, 지방에서는 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